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4. 21.(금)	담당부서	미주통상과,다자통상협력과,철강화학과
담당과장	박찬기 과장(044-203-5650) 서가람 과장(044-203-5640) 김종철 과장(044-203-4280)	담 당 자	최성준 서기관(044-203-5651) 노정림 사무관(044-203-5643) 이우진 사무관(044-203-4286)

정부, 최근 일련의 미국 철강 수입규제 강화 관련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 방침

□ 최근 미국이 유정용 강관 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국가 안보와 관련한 철강 수입 제한 관련 대통령 명령 발표 등 일련의 철강관련 수입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는 그간 민관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왔던 것처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우태희 제 차관은 미 정부에 최근 유정용 강관 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 등 철강 관련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반덤핑위원회 계기에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 차 철강 글로벌 포럼 베를린 에서 국제 철강 과잉공급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철강 관련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향후 민관공동의 수입규제 대응 특별팀 차관주재 수입규제협의회 등을 적극 가동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미국과의 양자협의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특별팀 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과 수차례의 실무·고위급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분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에도 대미 통상에 있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최성준 서기관(044-203-56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